

# 참된 회심의 표지들에 대한 한 연구 : 성 버나드의 “On Conversion”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True Grace”를 중심으로

박철동

Ⅰ Ph. D. 주말씀교회, 조직신학 Ⅰ

## 국문초록

참된 회심의 표지는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한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 할 권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회심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아닌 참된 회심의 표지들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자신과 목회 현장에서 참된 회심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을 제공해 주고, 영적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12세기 클레어보어의 버나드와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론과 참된 회심의 공통적인 표지들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학적 측면에서 첫째, 회심은 근래에 주로 논의되는 회개와 믿음 측면에 국한시키는 것보다 신자들의 삶 전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회심에 있어서, 믿음과 회개에 앞서는 일차적 중생과 후속하는 이차적인 중생(회개, 성화)을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연속성을 파괴하

기 때문이다. 첫 신앙을 갖게 한 중생과, 이로 인한 갖게 된 믿음의 결과인 회개의 삶은 단절되지 않은 연속적인 과정이다. 둘째, 첫 회심과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회심에서, 다양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말씀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내적 말씀 또는 성령의 사역은 그 근거가 상실된다.

참된 회심의 공통적인 표지들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은, 첫째, 첫 회심과 함께 지속적인 말씀에 대한 체험적 지식, 즉 객관적인 계시,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신뢰하는 삶은 모든 신자들의 삶의 토대와 영적 양식이 된다. 둘째, 이로부터 내적으로 지속적인 전인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은 회개의 삶의 첫 번째 요소인 죄를 죽이고 정복하는 삶이다. 그 결과는 내외적인 겸손으로 이어진다. 셋째, 첫 번째 표지의 외적 결과로서, 또한 회개의 삶의 두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것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악을 선으로 갚는데 까지 발전해 나가는 이웃 사랑이다.

#### [ 주제어 ]

참된 회심, 조나단 에드워즈, 성 버나드, 영성, 종교적 경험, 거룩함, 정서

## I. 들어가는 말

다른 사람이 참된 회심을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는가? 같은 신자로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비록 타인의 참된

회심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않지만, 목회적 실존에서 신자들 중 혹시 참된 회심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한 참된 회심 여부는 신학적 측면에서는 신학과 영성, 교리와 실천(praxis)이 분리가 심화될 때 중요한 주제로 대두된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회심 여부를 부정적 측면으로 분별하기 보다는, 참된 회심을 했다면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외적인 성향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참된 표지로 간주 할 수 있는 성향과 특징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회심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참된 회심의 표지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회심 초기보다 그 이후 성장한 신앙의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신앙성장 여부와 회심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신자들이 현재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성경적 성장의 실제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연구방법론으로 12세기의 클레어보어 수도원 원장이었던 성 버나드(St. Bernard of Clairvaux, 1090-1153)의 “회심에 대하여” 강연과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1703-1758)의 “참된 은혜” 설교를 참된 회심의 표지들에 대한 비교로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버나드가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된 신앙의 단계들과 에드워즈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참된 회심의 표지들 간의 유사한 내용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2세기와 18세기라는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참된 회심의 표지로 간주 할 수 있는 공통내용들은 오늘날에도 역시 참된 회심의 표지 또는 신앙성장의 방향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두 신학자의 회심론의 유사한 내용의 특성 측면이다. 참된 회심에 대한 표지는 그 성격

상 지, 정, 의 또는 신학과 영성, 교리와 실천(praxis) 모두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버나드와 에드워즈의 회심론은 서로 다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측면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교회사에서 이성과 감정, 신학과 영성이 잘 조화를 이루었던 성 어거스틴, 성 버나드,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요한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는 건전한 신앙을 공급하고 당대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다.<sup>1</sup> 따라서 두 신학자들의 참된 회심의 표지로 고려할 수 있는 내용들은 오늘날 대두되는 교리와 실천, 신학과 영성의 분리에 대한 적합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작품선정에 대한 내용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참된 은혜”(1752) 설교는 그의 참된 회심의 기반과 성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sup>2</sup> 버나드의 “회심에 관하여”는 설교 형태의 강연으로 지금까지 별로 연구되지 않았었지만 자신의 회심체험을 기반으로 회심 전 단계, 회심 단계, 회심 이후 단계를 제시한 참된 회

1) 원종천, 『중세영성의 진수: 성 버나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3-15.

2) 스테티나(K. S. Stetina)는 에드워즈의 회심의 본질적 측면을 다룬 대표적인 논문이나 설교를 연대기적으로 “신적 초자연적 빛(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1734)”, “종교적 정서들에 관한 논문(A Treatise Concerning Religious Affections, 1746)”, “참된 미덕의 본질(Nature of True Virtue, 1755)”로 제시했다(Karin Spiecker Stetina, “The ‘Sense Of The Heart’: Edwards’s Public Expression Of His Pietistic Understanding Of Religious Experience,” *Puritan Reformed Journal* 2/1 (Jan 2010): 198. 이후 에드워즈는 1750년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의 부흥운동을 통해 회심하였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볼 때 실제로 회심한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1752년 뉴욕 대회(The Synod of New York)에서 참된 회심의 표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한 설교를 “마귀들을 경험과 구별되는 참된 은혜”(True Grace Distinguished from The Experience of Devils)로 하였다(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I, 3rd, edition (Aron: The Bath Press: 1992), 103-24); 이후 WJ/I 로 표기함. 이 설교를 윌리엄 카슨(William Carson)이 1994년 “How to know if you are a real Christian” 제목으로 현대영어로 재편집하여 번역하였다.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찾을 수 있고 비교적 내용이 충실하지만, 원본에서 일부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에드워즈의 “참된 은혜” 설교 원본 전체를 번역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조나단 에드워즈, “참된 은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열매들』, 박철동 역, 임택규 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177-286.

심의 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작품이다.

본 논문은 이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회심과 전, 후에 대한 심리학적 인 접근인 주관주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가능한 회심과 연관된 심리적 변화를 그 자체로 다루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의 종합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복음 또는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심리적 변화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회심의 표지들에 대한 범위를 주로 죄에 대한 인식, 복음과 율법에 대한 반응과 결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 II. 버나드의 회심론과 참된 회심의 표지들

### A. 버나드의 회심과 회심론

먼저 버나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프랑스 클레어보어 수도원 원장이었던 버나드는 13세기 중세 스콜라신학이 정립되기 전 12세기 유럽 전역에서 영적, 정치적 지도자였다.<sup>3</sup> 신학적으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어거스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인물 중 한 명일 정도로 종교개혁적 입장과 유사하다.<sup>4</sup> 즉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관 등이며<sup>5</sup> 일부 내용은 본 논문에서 버나드의 회심론

3) St. Bernard, *Bernard of Clairvaux: Selected Works*, trans. G. R. Evans (New York: Paulist Press, 1986), 13-15.

4) 『기독교 강요』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700번 이상 인용되었고 버나드는 94회 정도 인용되었다.

5) 중세 서방 신비주의에 대한 배경과, 버나드의 인간론과 그리스도론, 구원론, 명상적 신비 체험, 실천 의식, 종교개혁과 청교도주의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저서는 다음을 참

에서 다루어진다.

버나드의 회심론은 자신의 회심체험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버나드의 회심체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별한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다. 첫째 버나드의 회심 시기는 그에게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절망의 시기였다.<sup>6</sup> 두 번째 배경은 어린 시절 생동감 넘쳤던 그의 신앙은 20세 전후가 되면서 세상의 화려함, 이성애 사로잡히는 마음 가운데 급속하게 냉랭해졌다. 세 번째는 버나드의 외모나 성격, 언행 등이 매우 준수했기에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의 세상적인 권면과 함께 육체와 마음의 욕망에 대한 유혹이 강했고, 이로 인해서 버나드는 자신의 영적인 교만에 대한 번민 가운데 있었다.<sup>7</sup>

버나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인 갈망을 추구했지만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를 더욱 번민하게 하였다. 어느 날 많은 번민 가운데 자신의 형제 집을 방문하러 가는 도중에 잠잠하고 깊은 생각 속에서 갑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버나드의 마음은 천상적 갈망(a heavenly longing)에 사로잡혔고, 뻗속 깊숙이까지 전율을 느꼈다. 그

---

조하라. 원종천, 『중세영성의 진수: 성 버나드』 (2004).

- 6) 버나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깊은 신앙심과 함께 항상 가난한 자, 병자들을 하인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섬기는 등, 경건과 자선을 늘 함께 겸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다. 당시 관례에 따라 성 암브로시우스 축제 연회를 자신의 집에서 베푸는 기간 중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Marie Theodore Théodore, *The Life and Time of St. Bernard* (New York: J. Sadlie, 1889), 27-30)
- 7) Théodore, *The Life and Time of St. Bernard*, 27-29, 31- 35; 버나드의 저작 중에서 교만과 겸손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은 그의 이러한 번뇌의, 신앙 안에서 자유함과 그 가운데서 성장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St. Bernard, “On the Steps of Humility and Pride,” in *Bernard of Clairvaux: Selected Works*, trans. G. R. Evans (New York: Paulist Press, 1986), 99-144.

는 가는 길을 교회 앞에서 멈추고 교회로 들어가 강대상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였다. 주님의 면전에서 선지자들의 말이 물과 같이 그에게 부어졌다. 그 순간 자신의 영혼에 깊은 고요함이 느껴졌고, 하나님의 호ощ이 영적인 생명의 등불을 다시 밝혔다. 버나드는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명예를 넘치는 기쁨 가운데 마음속에 짊어지었다.<sup>8</sup> 훗날 버나드는 자신의 회심을 클레어보어의 수도사들(교육)과 연관시키기를 좋아했고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나의 회심의 시작(회심체험)을 특별하게 그리고 자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커다란 완고함과 차가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나는 내 얼어붙은 마음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분(Him), 내 영혼이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그분을 찾고 있었다. ... 내 영혼은 내면적으로 더욱더 약해졌고 슬픔에 잠겼고 거의 절망 상태에서 애통해했다. 갑자기 어떤 영적인 분의 첫 모습을 본 후, 하나님의 성령은 얼어붙은 (나의 마음의) 물들 위에 숨을 불어 넣었고 (얼었던 마음에서 녹은) 물들이 계속 흘렀다. 밤낮을 눈물로 보냈다.<sup>9</sup>

버나드의 회심체험은, (1) 회심 준비단계로서, 심한 영적 번뇌 가운데, (2) 회심단계로,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특별한 체험 가운데, 단번에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켰다는 측면과, (3) 회심 이후 단계로, 자신의 회심체험을 “회심의

8) Théodore, *The Life and Time of St. Bernard*, 35-36; James Cotter Morison M. A., *The Life and Time of Saint Bernard Abbot of Clairvaux A.D. 1091-1153* (Lincon College, Oxford: Macmilan and co, 1884), 9-22.

9) Théodore, *The Life and Time of St. Bernard*, 36; 흘림체로 강조한 부분은 필자에 의한 강조이다.

시작”으로 표현하여 회심이 한 사건이면서 이후 더욱 발전하는 과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sup>10</sup> 요약되고 그의 회심의 대한 설교에 반영되었다. 버나드가 활동했던 12세기 당시에 회심은 “수도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결심”이었다.<sup>11</sup> 그러나 버나드의 회심론은 이와 함께 마음의 회심을 포함하여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제시된다.

버나드는 1139년 사순절과 1140년 초 사이에 저명한 시토 수도회의 원장, 영적 선생들 그리고 교회 개혁자로 언급되었던 신학자들과 학생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성직자들에게 회심에 대하여”(Ad clericos de conversione)란 제목으로 연속적인 설교 형태의 강연을 파리에서 가졌다. 학자적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버나드는 회심 과정에 대한 단계별 심리 상태를 뛰어난 수사학적 재능으로 묘사하였다. 강연은 청중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고 그 결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버나드를 따라 클레어보어 수도원에 들어갔다.<sup>12</sup>

전체적인 강연의 구성은, 먼저 회심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의미를 제시하고, 이어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회심의 과정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였다, 버나드는 강연 전체를 통해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따른 은혜라는 점과 종말에 완성되는 회심의 과정을 굳건히 걸어가야 하는 개인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회심론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세 번째 특징은 버나드 당시에는 구분되지 않았던 중생과 성화와의 관계 또는 개혁과에서 발전시킨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와 연관성을 갖는다.

11) St. Bernard, “On Conversion,” in *Bernard of Clairvaux: Selected Works*, trans. G. R. Evans (New York: Paulist Press, 1986), 65.

12) Bernard, “On Conversion,” 65.; Dennis J. Billy, “Preaching Conversion Through The Beatitudes: Bernard of Clairvaux’s *Ad Clericos De Conversione*,” *Faith & Reason* (Winter, 1995), 1, available at: <https://www.catholicculture.org/culture/library/view.cfm?recnum=3729> [2018년 6월 3일] 페이지는 pdf로 합성한 페이지 적용함.



첫째 버나드는 먼저 회심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강조한다. 버나드의 강연에 구원과 연관하여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이란 해당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개념이 나타난다. 전적인 부패와 연관하여, 버나드는 죄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을 강조한다.<sup>13</sup>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이성은 눈멀었고,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은 것을 회복할 수 없다.” 또한 “기억은 불결하고 저주받은 상태에 있고 의지는 약해졌고 정욕의 상처들로 덮여지게 되었다.”<sup>14</sup> 그래서 버나드는 “나의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한다.”(시 42:6)의 말씀을 들면서 죄와 동요(disturbance), 혼란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없다고 말한다.<sup>15</sup> 버나드는 그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인간의 죄악된 실상<sup>16</sup>을 생생하게 제시하며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곧 회심의 필요성, 내면의 회심을 강조한다.<sup>17</sup> 따라서 버나드는 회심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한다. “너희가 돌이켜(are converted)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와 같은 말씀 등으로 이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심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sup>18</sup> 다음으로 회심은 말씀으로 내면의 소리를 듣

13) 이러한 측면은 청교도 회심론과의 연관성을 쉽게 생각하게 한다.

14) Bernard, “On Conversion,” 75.

15) Bernard, “On Conversion,” 68.

16) 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하여 버나드가 따르는 어거스틴적 전통인 선의 결핍, 의지의 왜곡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H. Bavinck, *Reformed Dogmatics*, edit. John Bolt, trans. John Vriend, Vol. 3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43-63.

17) Bernard, “On Conversion,” 69-75; 12세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어도 버나드는 회심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따라서 회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 오직 은혜에 대한 관점과도 같다. 당시에 교황제가 베드로가 사도의 후계자라는 것에 정통성의 기반을 두었지만, 버나드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기 전까지 베드로가 어떤 고기도 잡지 못했음을 언급하였다. 즉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임을 강조한다.

18) Bernard, “On Conversion,” 66.

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버나드는 “영혼의 회심은 인간의 소리로서가 아닌 명백하게 하나님의 소리의 사역”이라고 말한다.<sup>19</sup> 설교자의 소리는 그 자체가 능력을 갖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소리에 능력을 주신다.”<sup>20</sup>

둘째 말씀으로 주어지는 내면의 소리의 능력 자체는 “하나님의 나태한 영혼을 흔들며,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과 장엄한 소리”이다. 따라서 버나드는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듣기위해 마음의 귀를 고양하기를(to lift up) 권고한다.”<sup>21</sup>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는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말하며(사 58:1), 동시에 어둠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고전 4:5) 빛의 광선과 같은 능력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죄인들에게는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이다.<sup>22</sup> 즉 버나드가 말하는 내면의 소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동일하기에, “소리는 빛의 광채(히 1:3)와 동일하다.”<sup>23</sup>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를 버나드는 쾌락적인 것(voluptuous), 쾌락과는 구별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호기심(curious), 야망(ambitious)이 세 가지를 끄찍스러운 삼중적 종양의 병으로 묘사했다.<sup>24</sup>

셋째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비참한 다중적인 영혼의 종양을 깨닫게 하고, 회개로 부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면의 소리를 듣도록 인도한다. 버나드는 특별히 앞에서

19) Bernard, “On Conversion,” 66-67.

20) Bernard, “On Conversion,” 67.

21) Bernard, “On Conversion,” 67.

22) Bernard, “On Conversion,” 68.

23) 버나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3, 개정)로 이를 설명한다. (Bernard, “On Conversion,” 68.)

24) Bernard, “On Conversion,” 75.

언급한 것과 같이 죄인의 양심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구약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 표현한다.<sup>25</sup> 이 말씀의 능력이 양심의 소리 또는 내면의 소리로 들려진다. 이 말씀이 내면의 소리로 들려질 때, 회개하는 심령에 죄 사함을 줄뿐만 아니라(칭의), 이성과 기억 그리고 의지를 새롭게 한다(중생과 성화). 버나드에 있어 죄 사함은 “완전한 죄 사함”<sup>26</sup>, 단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죄 사함이다. 그러나 죄에 대한 기억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죄는 거기에 없다.<sup>27</sup>

다음으로 팔복을 비유적으로 해석한 회심 전 단계, 회심 단계 그리고 회심 후 단계라는 전체적인 범주로 고려하여 해당 내용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sup>28</sup>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이 회심의 단계이다. 그 이전의 복은 회심의 준비 단계, 이후의 복은 회심한 결과로 따르는 복에 해당된다. 버나드는 이러한 변화가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종말의 완성된다는 것에 함께 말한다.<sup>29</sup> 중복을 회피하기 위하여 버나드의 참된

25) 버나드의 그리스도 중심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특별한 주의, 구원론에서의 그리스도 중심성, 청교도주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영향 측면은 다음을 참조하라. 원종천, 『중세영성의 진수: 성 버나드』 (2004), 71-78, 93-108, 209-238.

26) Bernard, “On Conversion,” 88.

27) Bernard, “On Conversion,” 87-88.

28) 버나드의 회심에 대한 설교를 팔복을 중심으로 분석한 빌리(Billy)는 전체적인 체계를 회심 전 준비단계, 회심단계, 회심 후 이를 완성해 가는 단계로 분석하였다; Dennis J. Billy, “Preaching Conversion Through The Beatitudes: Bernard Of Clairvaux’s Ad Clericos De Conversione”, in *Faith & Reason* (New York: Christendom Press, 1995), 297-355.

29) 버나드의 팔복에 대한 비유적인 설교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적합한 말씀인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회심의 준비단계들에서, 첫 번째 복인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은 “전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 했다가보다는 심령 자체가 더욱 가난해진 상태이며”(“*Quis spiritu pauperior eo, qui in toton spiritu suo non invenit requiem*”) 이러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스스로의 교만을 버리게 되는 겸손하게 되어 있을 때,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스스로 온유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낙심된 마음을 어떤 능력으로도 그 원인인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의 노예로 밖에 지낼 수 없는 것에서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복의 말씀

회심의 표지들로 통합하여 다루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앞에서의 언급과 같이, 버나드는 회심은 하나님의 뜻과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사역임을 분명히 계속 강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회심을 위한 어렵고 힘든 여정을 인간 스스로 굳건히 걸어가야 할 책임 역시 강조한다.

## **B. 버나드의 참된 회심의 표지들**

우리는 버나드가 묘사한 회심 전, 후에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에 대한 진술을 통해 참된 회심의 표지로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분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버나드의 관련 저서들로 보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된 회심의 표지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깨달아가고 실제로 그 그러한 죄를 해결해 나가는 삶이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깊이 알고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더욱 해결해 나간다. 버나드는 이를 회심의 과정에서의 죄와의 연관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양심을 자극하는 벌레가 너무 심하게 처음부터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들에 자비의 기름을 부으셔서 죄에 대한 치료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질병의 심각성을 너무 많이 인식하지 않게 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의 치료에 편안히 미소 지을 회심의 수준을 갖게 하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의 감각들이 훈련되고 있을 때, 본격적인 죄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 때에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배우고 승리하기 시작한다. 이때는 양심 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뿌리를 캐내려는 열망을 갖게 된다.<sup>30)</sup> 이것은 구원 받

---

을 들려주신다. 팔복은 이러한 구조로 계속 이어진다. (Bernard, "On Conversion," 75-97)

30) Bernard, "On Conversion," 72.

은 성도가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둘째 죄와의 관계에서의 과정에서 에드워드의 용례를 따라<sup>31</sup> 부정적인 측면이다. 현재 지속적으로 죄와의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참된 회심의 표지가 될 수는 없다. 버나드는 실제 삶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어떤 쾌락(죄)에 빠져 있다면 회개를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경고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참된 회심의 표지는 자신과 죄와의 관계에 깊이 연관된다.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감에 따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 이전에는 죄로 간주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자기수양이 아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로 더욱 버리는 삶은 버나드의 강연 중에서의 언급과 같이, 첫 번째 참된 회심의 표지로 간주된다. 반대로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그 대상이 무엇이든 어떠한 죄 가운데 계속 있다면 자신의 상태가 실제로 영적 어린 아이거나, 또는 참된 회심을 가졌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버나드가 믿는 회심한 복음 신앙은 무엇인가? 버나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나의 상태를 그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완전한 죄 사함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세상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것도 의뢰하지 않고 - 이미 그러한 모든 것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아무런 능력이 없어 애통하는 상태에 있었다(첫 세 가지 복). -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완전한 죄 사함을 가져온다.<sup>32</sup> 곧 이신칭의와 같은 의미이다. 또한 시대적 배경 또는 어거스틴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심령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진다. 버나드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곧 선

31) 에드워즈는 참된 회심의 표지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했지만, 그와 반대되는 것은 그 의미가 명확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것은 참된 회심의 확실한(certain) 표지라고 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진술을 하였다.

32) Bernard, "On Conversion," 86-88.

물인 것을 분명히 한다.<sup>33</sup>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다. 버나드가 변민 가운데 찾은 것도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그 분(the Him)이었다. 내면의 목소리로 들려진 하나님 말씀은 다름 아닌 영광의 광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sup>34</sup> 이런 믿음은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에 대한 버나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On Loving God)에서의<sup>35</sup> 말이다.

사랑은 영혼의 한 정서(affection)이다. 사랑은 계약(contract)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동의나 그것에 의해 얻게 되는 것에서 발생 될 수 없다. 사랑의 기원은 자연발생적(spontaneous)이고 충동(impulse)이다. 진정한 사랑은 그 자체의 만족이다. 사랑은 사랑의 보상을 추구하지만, 그 보상은 사랑 받는 대상이다. …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분명히 아무도 사랑을 위해 대가를 치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어떤 보답해야 하는 의무이고, 그의 사랑이 건디어 낸다면 그는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sup>36</sup>

33) “하나님은 그의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자기 모양대로 구별된 존재로 창조하였고, 자신의 피로 인간의 구속하였고,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양자 삼으셨다.” (Bernard, “On Conversion,” 78).

34) Bernard, “On Conversion,” 68.

35) On Loving God는 총 1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랑의 네 단계는 3개장만으로 되어 있고, 앞의 7개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언급하였다면, 뒤의 5개장은 사랑의 결과로서의 자신의 강조를 포함하여 다소 부수적인 면을 언급하였다. 특별히 사랑의 네 단계에 대한 내용과 분석은 다음을 참조하라. 원종천, 『중세영성의 진수: 성 버나드』 (2004), 79-92.

36) Bernard, *On Loving God*, VII.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버나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 자신(God Himself)이고 그에 대한 사랑의 의무의 범위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sup>37)</sup>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 특별하게 부여받은 속성인 위대함과 지혜 그리고 미덕 때문이기도 하지만<sup>38)</sup> 특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며, 부활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39)</sup> 이와 관련하여 버나드의 전 저서 속에 나타나는 풍성한 십자가에 대한 신학과 신앙으로 단행본 저서를 낸 레인(Lane)은 ‘버나드의 사랑의 증거로서 십자가’의 의미를 버나드의 자신의 말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이것은(십자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 이러한 은혜의 유일한(unique) 행동은 사랑에 의해 더욱 그 자신과 우리를 결속시켜 우리의 마음이 신적인 은혜의 위대한 호의(kindness)에 의해 불꽃을 일으키게 한다. 진정한 사랑은 그를 위해 어떤 것을 겪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sup>40)</sup>

37) Bernard, *On Loving God*, I.

38) 버나드는 위대함은 자유의지로 이것이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을 월등하게 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고, 지혜는 이러한 위대함을 아는 것과 이것이 자기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미덕은 인간의 근원(Source)인 하나님을(또는 그리스도를, the Him) 열심히 찾게 되고, 하나님이 발견되었을 때(when He has been found)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게 된다고 말한다. (Bernard, *On Loving God*, II)

39) Bernard, *On Loving God*, I;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관상(contemplation)하라고 말한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닌 빚(debt)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을(God Himself) 위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그것보다 더 합리적인(reasonable) 것이 없고, 더 유익한(profitable)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40) Anthony N. S. Lane, *Bernard of Clairvaux Theologian of the Cros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152.

버나드의 회심론에서는 참된 회심의 결과 중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과 연관된다. 버나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회심의 목표라고 말하면서 이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영생”임을 적용한다.<sup>41</sup>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신뢰 가운데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는 참된 회심의 가장 뚜렷한 표지인 팔복의 마지막인 의를 위한 핍박을 감당하게 한다.<sup>42</sup>

넷째는 참된 회심의 결과로 이웃과 율법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인 회심의 단계 이후의 복이 ‘궁핍히 여기는 자의 복’이다. 즉 참된 회심의 결과는 곧바로 이웃에게로 향하게 되는 사랑으로 나타난다.<sup>43</sup>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도 나타나며, 버나드는 이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단계는 선을 받은 대로 선을 베푼다. 둘째 단계는 해를 입어도 인내하고 참는다. 셋째 단계는 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 악을 이기는 단계이다.<sup>44</sup> 참된 회심의 표지와 연관하여 셋째 단계는 분명 참된 회심의 표지이다. 버나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교훈적으로 말한다. 처음에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무엇을 도와주고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깊어지면 따라 이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율법이 부담스러운 계명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자

41) Bernard, “On Conversion,” 91-92; 사랑의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단계이다. 사랑의 네 번째 단계는 일생에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신비한 영성이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그의 수도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묵상하여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늘 깨어 있기를 권면한다. (Bernard, *On Loving God*, I, X).

42) Bernard, “On Conversion,” 96-97.

43) Bernard, “On Conversion,” 88-89.

44) Bernard, “On Conversion,” 90-94.



원하여 이를 지키게 된다.<sup>45</sup> 우리는 여기서 어느 단계가 회심의 단계인지 구태여 논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계속 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악을 선으로 갚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율법이 부담스럽지 않고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면이 비록 굴곡은 있어도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는가 여부이다. 이것이 자신의 회심 여부와 현재의 정상적인 신앙 성장을 결정해 주는 하나에 시금석이 된다.

### III.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론과 참된 회심의 표지들

#### A. 에드워즈의 회심과 회심론

버나드와 마찬가지로 에드워즈의 회심체험은 그의 모든 신학과 신앙적 영성의 근본을 이루기에 에드워즈의 회심체험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버나드의 회심체험과 비교한다면, 버나드의 회심 전, 회심과정, 회심 후 변화상태와 같이, 회심 전, 후의 변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유사점을 가진다. 먼저 에드워즈의 회심 전의 상태이다. 에드워즈의 자서전적 기록에 따르면, 에드워즈는 어릴 때부터 선택과 유기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교리를 때로는 무서운 교리로 생각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스스로 회심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교리에 대한 충분한 만족을 하였지만, 그것이 무엇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어떤 평가도 결코 내릴 수 없었다고 말한다.<sup>46</sup> 에드워즈는 이러한 상태에서 전에

45) 원종찬, 『중세영성의 진수: 성 버나드』(2004), 82-87.; “율법은 정결하며 영혼을 회심시킨다. 자신을 행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세상과 자기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ernard, *On Loving God*, VIII)

46) Jonathan Edwards, “Memories of Jonathan Edward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도 읽었던 딘전 1:7절 말씀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마치 하나님(신적 존재)의 영광이,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영혼의 새로운 감각(new sense)으로 들어와 자신의 영혼에 퍼지고 그러한 말씀의 능력의 기쁨과 즐거움, 달콤한 등으로 자신이 삼켜진 것과 같은 특별한 말씀 체험을 하게 된다. 에드워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기억으로, 이전에도 많이 읽어왔던 디모테전서 1:17을 읽는 중에 하나님과 신적인 것들(divine things) 안에서 처음으로 내면에서 달콤한 즐거움(sweet delight)을 경험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적 존재(Divine Being)의 영광이, 이를 감지하는 새로운 감각(new sense), 즉 그러한 감각(sense)을 통해 내 영혼 안에 들어왔고 (영혼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전에 성경의 어떤 말씀들도 이렇게 경험된 적이 없었다. 내 스스로 생각했다. 하나님(a Being)이 얼마나 탁월하신(excellent) 분이신지, 그러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분께 들려 올리어진다면 말하자면 영혼토록 그분 안에 삼켜어진바 된다면!<sup>47</sup>

---

Vol. I . 2nd. edition (Aron: The Bath Press: 1992), 6-13; 이후 WJ/ I 로 표기함.

- 47) Edwards, “Memories of Jonathan Edwards,” in WJ/I, 9: “The first instance, that I remember, of that sort of inward, sweet delight in God and divine things, that I have lived much in since, was on reading those words, 1Tim. i, 17.. *Now un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wise God, be honour and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As I read the words, there came into my soul, and was as it were diffused through it, a sense of the glory of the Divine Being; a new sense, quite different from any thing I ever experienced before. Never any words of Scripture seemed to me as these words did. I thought with myself, how excellent a Being that was, and how happy I should be, if I might enjoy that God, and be rapt up to him in heaven; and be as it were swallowed up in him for ever!”

에드워즈의 회심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경험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와, 그와 연관된 말씀 자체의 영광, 탁월성 등을 통해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를 뛰어넘어 주어지고, 그로 인해 기쁨과 달콤함 아름다운 등을 깊이 경험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48</sup> 이 의미가 에드워즈 자신이 시무한 교회의 부흥시기에 행했던 “신적 초자연적 빛(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1734)” 설교<sup>49</sup>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에드워즈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며(마 16:16-17)<sup>50</sup>, 이를 가능케 한 참된 회심의 증거인 “영적이고 신적 빛(spiritual and divine light)”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자신의 회심체험과도 연관된 것으로, 말씀을 통한 “신적 초자연적 빛”이 자연적 수단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지 이 교리의 진실성과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8) 회심체험 이후 에드워즈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중예정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즉 그의 이성(은혜)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공의와 합리성(reasonableness)을 이해했고 그의 마음은 그 안에서 안식을 찾았다고 말한다. 첫 회심이후 전에는 갖지 못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의미(sense)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확신이 아닌 기쁨의 확신(delightful conviction)이라고 말한다. 이 예정교리가 이제는 때로는 넘치는 기쁨, 환희(bright), 달콤함(sweet)을 준다고 말한다. 자신의 정신은 그리스도 그 인격의 아름다움(beauty)과 탁월함(excellency)과 그 안에서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랑스러운(lovely) 방법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에드워즈가 설교의 중심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나 ‘구속사’ 혹은 참된 회심에 관한 내용 등을 자주 언급한 동기를 그의 체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Edwards, “Memories of Jonathan Edwards,” in WJ/I, 9-11.

49) “신적 초자연적 빛” 설교는 1734년 회중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영혼에 직접 수여된 신적 초자연적 빛이 성경적이고 이성적인 교리임을 증명함(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Immediately Imparted to the Soul by the Spirit of God, Shown to be Both a Scriptural, Rational Doctrine)” 이름으로 출판됐다.

50) J.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in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a reader*, ed. Wilson H. Kimnach, Kenneth P. Minkema, and Douglas A. Sween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123: “only to the gracious distinguishing influence and revelation of the Spirit of God”

(신적 초자연적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들의 신적 탁월성(divine excellency)에 대한 진정한 감각(true sense)이며, 거기로부터(영혼의 새로운 감각)로부터 일어나는 그것들의(신적 탁월성의) 진실성과 실재성(the truth and reality)에 대한 확신(conviction)이다.<sup>51</sup>

이후 에드워드는 자신의 회심체험과 이와 연관된 회심론을 대각성 운동 이후 “종교적 정서(Religious Affection)”에 대한 논문으로 보다 체계화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감지하는 새로운 감각은 “거룩한 종교적 정서”로 정립되었다.<sup>52</sup> 성경과 연관하여 거룩한 종교적 정서 측면에서 참된 회심의 표지가 되는 12가지 내용과 회심의 확실한 표지가 될 수도 있고

51)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126: “a true sense of the divine excellency of the things revealed in the Word of God, and a conviction of the truth and reality of them, thence arising.”

52) 에드워즈의 저서에 쓰인 용어들에 대하여 특별히 존 로크의 경험적 방법론에 근거한 정의들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물론 에드워즈가 경험론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지각하고 영혼, 또는 마음으로 이를 분별하여 지식을 갖는 과정을 당시 잘 정리된 영국 경험론적 설명을 따랐다. 대상을 감각기관이 지각하여 이를 인지하는 것을 인식(perception)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마음(또는 정신)이 2차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반사(reflection), 사색(speculate), 대상들을 판별하는(discern)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을 오성(또는 이해, understanding)이라 부른다. 그 결과 어떤 지식의 단위가 남는 것을 개념(idea)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식이나 어떤 체계인 경우는 원리(principle)로 표현하였다. 새로운 감각(new sense)은 영혼이 말씀에 대한 어떤 신적인 진리를 인지하는 영혼의 어떤 새로운 기관으로 보았고 이를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는 “원리들(principles)의 주입”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때로는 언급하기도 한다.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진다는 표현은 개혁과 구원론에서 중생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정서(affection)는 일시적인 열정(passion)이나 감정과는 다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혼이 어떤 개념들과 원리들을 갖는다면 영혼 자체가 어떤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어떤 방향을 지배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드워즈가 정의한 정서이다.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거룩한 정서들로 마음의 성향이 기울어진(충만해진) 신자들이 참된 회심한 신자들이다. 이러한 신자들의 대표적인 정서가 “거룩한 사랑”이다; Edwards, “Religious Affection,” in JE/ I, 1152-1156. “정서는 영혼의 의지와 성향의 보다 활력 있고 감지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The affections are no other than the more vigorous and sensible exercises of the inclination and will of the soul).”

되지 않을 수도 있는 12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어지는 회심론의 개념과 참된 회심의 표지들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에드워즈의 회심론 자체는 다르지는 않는다. 논문에 목적에 맞게 참된 회심의 표지와 연관된 회심론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드워즈의 회심론에서 영혼을 중생시키는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 아름다움 등으로 오며 영혼의 새로운 감각이 이를 인지하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신적 초자연적 빛의 구체적인 내용은 “복음 속에 계시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방법들과 사역들”(the ways and works) 등이다. “영적으로 조명된(enlightened) 사람은 이것을 참되게 이해하고, 보거나 혹은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을 가진다.” 에드워즈는 이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한 것은 선한 것이라는 이성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사랑스러움(loveliness)에 대한 감각”을 포함한다고 말한다.<sup>53</sup> 또한 에드워즈는 이러한 빛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같은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이지 다른 새로운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sup>54</sup>

둘째 에드워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것들의 신적 탁월성을 인지하는 (영혼의) 감각으로부터 신적 탁월성들에 대한 진실성과 실재성의 확신”<sup>55</sup>이 온다고 말한다. 그 방법은 이성의 장애물인 자연인이 하나님의 일들과 복음에 대해 갖는 적대감이 신적 탁월성의 감각으로 제거

53)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127.

54)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130.

55)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128; “There arises from this sense of divine excellency of things contained in the Word of God, a conviction of the truth and reality of the them”

됨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의 탁월성이 너무나 지고(至高, superlative)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들에 대한 신적 탁월성에 대한 진정한 감각은 그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보다 직접적으로(directly), 즉각적으로(immediately) 준다고 말한다.”<sup>56</sup>

셋째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탁월성이나 이를 인지하는 새로운 감각 등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구도론’을 주장한다. 에드워즈가 회심론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설교한 “거듭남(Born Again)”이나 “회심의 실재성(Reality of Conversion)” 모두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부분의 말씀의 설교로 했다. 에드워즈는 “회심의 실재성” 교리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회심(거듭남, 중생)의 본질적인 내용을 말했다. 적용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경건한 삶을 위한 17가지 권면을 두 가지 측면의 주의 가운데 말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죄는 무한한 죄과(demerit)를 가진 것이기에 자신이 이룬 어떤 성취도 속죄에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이 이룬 어떤 성취를 하나님의 동정을 사는 것에 기여한다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다. 둘째 같은 권면을 다룬 “천국을 침노하는 것(Pressing into Heaven)” 설교에서 권면의 유용성은 강조하지만 결과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회심의 실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자신에게 이러한 권면을 들은(듣고 실천한) 사람들 중 나이, 학벌, 환경 등에 상관없이, 현재도 아직 회심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한다.’<sup>57</sup>

56)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129.

57) Jonathan Edward, “Reality of Conversi,” in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a reader*, ed. Wilson H. Kinnach, Kenneth P. Minkema, and Douglas A. Sween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83-104.

우리는 지금까지 에드워즈 회심체험과 회심론을 참된 회심의 표지와 연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다루었다. 따라서 곧바로 참된 회심의 표지로 논의를 진행하고 한다.

## B. 에드워즈 참된 회심의 표지들

노병기는 에드워즈가 회심(중생)의 표지들을 언급한 『종교적 정서들』(Religious Affections), 『성령의 사역의 구별되는 표지들』(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자선과 그 열매』(Charity and Its Fruits), 『은혜론』(Treatise on Grace), 『참된 덕의 본질』(The Nature of True Virtue)의 내용을 각각 전체적으로 잘 요약하여 제시하였다.<sup>58</sup> 본고에서 주로 참고한 “참된 은혜”(True Grace) 설교를 참조하지 않은 것과 나열식이 아닌 종합적인 분석으로 이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참된 회심” 설교는 앞에서 언급된 에드워즈의 저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면서도, 참된 회심의 표지들을 그 토대(fountain)과 그 결과로서의 성향(tendency)로 함축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참된 은혜” 설교를 위주로 하면서 필요한 관련 저서들로 추가적으로 보완하면서 에드워즈의 참된 회심의 표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드워즈는 참된 은혜(회심)의 표지들을, 다른 모든 것들은 기반과 그로부터 나오는 성향, 두 가지 측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참된 회심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는 최고의 거룩한 아름다움(beauty)의 감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신적인 것들의 사랑스러움(comingness)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 자신들 속에 있거나 혹은 그들

58) 노병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중생론: 칼빈, 웨슬리의 신학 사상과 관련하여”, (신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178-187.

자신의 본성 안에 있다.<sup>59</sup> 신적인 것들의 탁월성 혹은 사랑스러움(loveliness)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믿음의 기반”이며, “구원하는 믿음을 준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광의 섬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은후하심”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대항들을 소멸하고 극복하기” 때문이다.<sup>60</sup> 에드워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 등의 신적 탁월성과 영광이야말로 참된 성도가 그것을 사랑하는 이유이다.”<sup>61</sup> “모든 참된 종교의 본질은 거룩한 사랑 안에 존재한다.” 이러한 “거룩한 사랑”이 “신적 탁월성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신적 아름다움의 감각은 참된 회심 안에서 영혼 안에 만들어진 실제 변화 중 첫 번째 것이고, 다른 변화된 모든 것의 기초(foundation)이다.”<sup>62</sup>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러한 감각은 참된 회심의 삶에서 진정한 구원하는 믿음(saving faith)의 시작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했다거나 그를 위해 죽었다는 것과 같은 어떤 모호한(vague)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애매한(fuzzy) 감정들이 사랑이나 기쁨을 일으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의 형벌로부터 도피한 것에 감사를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감정들은 자기사랑(self-love)에 기반을 둔 것이지 전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love for Christ)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믿음에 미혹 되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 이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59) Edwards, “True Grace,” in WJ/ I , 119; “an apprehension of sense of the supreme holy beauty and comeliness of divine things, as they are in themselves, or in their own nature”; 참조. 조나단 에드워즈, “참된 은혜”, 261.

60) Edwards, “True Grace,” in WJ/ I , 119-121; 조나단 에드워즈, “참된 은혜”, 266-270.

61)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in WJ/ I , 1255.

62) Edwards, “True Grace,” in WJ/ II , 121.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만 있는 것이다.<sup>63</sup>

에드워즈가 참된 회심의 표지로 자주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신적인 것들의 아름다움이나 탁월함은 세속적인 아름다움이나 특별히 고안된 신학적 미학의 표현이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으로 말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된 “완전함, 최고의 선, 영원함 등에서 나오는 장엄한 아름다움”이다.<sup>64</sup> 이러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 “위엄”, “능력”, “아름다움” 등과 같은 여호와와의 압도적인 임재로 알려질 때 갖게 되는 거룩한 감동이다.<sup>65</sup> 이로부터 목회적 함의도 도출되어진다.<sup>66</sup> 에드워즈는 현대의 신자들이 들었을 때 큰 도전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믿음이 참된 회심의 표지가 될 수 없음을 말한다.

63) Edwards, “True Grace,” in WJ/II, 121.

64) Hans Urs von Balthasar, *Seeing the Form (The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trans. Erasmo Leiva-Merikakis, eds. Joseph Fessio and John Riches, Vol. 1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New York: Crossroad Publications, 1983-1991), 104; S. J. Nichols, “The Glory of God Present and past,” in *The Glory of God*, eds. C. W. Morgan, & R. A. Peterson (Wheaton, IL: Crossway, 2010), 27-28에서 재인용; 구약에서 ‘아름다움’을 포함하여 특별히 최소한 25종 이상의 어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다. 70인 역과 신약의 헬라어는 하나님의 영광의 대표적인 히브리어 카보드(כבוד)를 포함한 대부분 용어들을 독사(δόξα)로 번역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움(beaty תְּהִלָּה)으로 구약에서 자주 표현되었다; “존귀(splendor, נִיחָא)와 위엄(majesty, הִדְבָּר)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strength, כֹּחַ)과 아름다움(beaty, תְּהִלָּה)이 그의 성소에 있다.”(시 96:6). G. Henton, Davies, “Glory,” in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ed. George Arthur Buttrick, 5 vols. (New York: Abingdon Press, 1962-1976), 2:401.

65) Longman, “The Glory of God in the Old Testament,” in *The Glory of God* (2010), 48.

66) 이문균은 에드워즈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에서, 하나님 자체 존재의 아름다움과 우리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목회적 함의를 관계성과 소통, 신앙적 체험의 장려, 구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 자연에 대한 성례전적 감수성, 설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의 목회적 적용을 제시하였다(이문균,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와 그 목회적 함의”, 『한국 기독교 신학논총』 65/1 2009, 135-157).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근원이 그리스도가 특별하게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생각 속에서, 직접적으로 깨달은 (다른) 신적인 증거나 어떤 다른 깨달은 증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기사랑 이상의 더 높은 원리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귀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원리이기도 하다. 자기 사랑은 은혜가 없이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눅 6:23).<sup>67</sup>

에드워즈는 이와 같은 자기 사랑이나 은혜 없이 가진 자연적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현혹되었음을 한탄한다.<sup>68</sup>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참된 은혜” 설교 앞부분에서 에드워즈는 당시 참된 회심체험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그 이후에 성령의 내적인 확신을 통한 위로와 평안이<sup>69</sup> ‘참된 은혜의 확실한 표지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중에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를 아는 믿음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성향은 무엇인가? 에드워즈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내면적인 것으로 거룩함과 겸손이다. 죄를 더욱 미워하고 버리는 성향이 나타나고 그런 겸손이 내면속에서 발전되어 간다. 에드워즈는 교만을 두 가지를 든다. 스스로 성숙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말한다. 또 하나의 성향은 외적인 것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참된 자선, 이웃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sup>70</sup>

이제부터 언급하는 에드워즈가 말하는 참된 회심의 표지들은 이러한

67) Edwards, “True Grace,” in WJ/II, 118-119.

68) Edwards, “True Grace,” in WJ/II, 116.

69) 양낙홍,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45-75.

70) Edwards, “True Grace,” in WJ/II, 121-123.

근원과 성향에 대한 몇 가지 예들이다. 둘째 새로운 감각으로 본 십자가의 복음은 참된 영적 지식과 안식을 준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최악의 죄들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만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근거와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와 순종, 중보에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을 적합하게 보고, 이해한다. 이것은 ... 그리스도의 충분성(sufficiency)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고양된 발견으로 가난한 정죄 받은 영혼에게 만족과 안식을 준다.<sup>71</sup>

앞서 언급한 에드워즈의 회심체험 후 변화된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에드워즈가 자주 말하는 신적 초자연적 빛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감각”은 특별한 경험이나 새로운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성경과 관련된 기존의 진리에 대한 확실성과 진실성을 보는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감각(혹은 경험)으로, 이러한 진리 자체인 신적 탁월성에 대한 인식은 그에게 달콤함(sweet), 밝음(bright), 기쁨(joy)을 준 것이다. 다음 세 가지 구체적인 예는 모두 에드워즈가 한 말이지만 설교들과 논문들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하여 관련 근거는 생략 하였다.

셋째, 거짓 믿음의 근원(source)이 자기사랑이라면 그 결과는 위선된 교만을 포함한 교만이며, 참된 회심에서 나온 구원하는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그리스도)을 위한 혹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 결과는 항상 ‘겸손’으로 귀결된다.

넷째,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 이웃에 대한 “미덕

71) Edwards, “True Grace,” in WJ/II, 120-121.

(선행, virtue)”은 “세속적 도덕주의”인 자기사랑의 다른 형태나,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나온 것으로 자신의 영광이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선행(특히 자선)을 하게 된다.<sup>72</sup> 그렇기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의무에 대한 말씀들이 부담감으로서가 아닌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섯째, 에드워즈가 “회심의 실재성” 설교나 “종교적 정서” 1부에서 예를 든 것같이 박해나 순교 시에 그 위에 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나 기쁨으로 그러한 환난을 능히 극복하는 것은 참된 회심의 분명한 표지이다.

## IV. 버나드와 에드워즈의 회심체험과 회심관, 참된 회심의 표지들 비교

### A. 버나드와 에드워즈의 회심체험과 회심관 비교

버나드와 에드워즈의 회심체험과 이를 기반으로 한 회심관의 일반적인 공통점은 이어지는 참된 회심의 표지들의 비교에서 다루어진다. 여기서는 두 신학자의 회심체험과 회심관 자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공통점이다. 개혁파의 중생과 회심과의 관계의 다양한 관점에서,<sup>73</sup> 두 신학자는 앞의 각주 73번 내용 중 칼빈의 관

72) Stetina, “The “Sense Of The Heart”: Edwards’s Public Expression Of His Pietistic Understanding Of Religious Experience,” 209-210. 일반 도덕과 구별되는 회심한 성도들의 이러한 미덕이 에드워즈의 “참된 미덕의 본질”(Nature of True Virtue) 논문의 주제이다.

73) 칼빈은 회심을 보다 폭넓게 보았다. 회개를 믿음에 의한 중생, 믿음의 결과로 보았고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III, iii, 1), 따라서 회심을 중생과 동일시하였다(Calvin, *Instit*, III, iii, 9). 17세기 개혁파의 주류적인 관점은 중생을 회

점과 같이, 회심을 중생과 동일시하였고 중생 또는 회심이 단회적인 사건인 동시에 연속적인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보았다.<sup>74</sup> 차이점은 칼빈이 중생

심과 동일시하는데 있었다. 도르트 신경은 회심을 말씀에 의한 부르심(소명), 중생과 동일시하였다. 즉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택자들 가운데 성취하는 것”을 “참된 회심으로 역사하는 것”과 동일시하였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외적 말씀으로 선포된 복음이 “같은 성령의 사역으로”인하여 “능력으로 조명된 내적 말씀”에 의해 복음을 참되게 이해하고 믿게 되며(믿음과 칭의), “같은 중생시키는 성령”에 의해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서”, “새로운 자질들이 의지에 주입되어” 죽은 상태에서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는 마음의 활례를 받는다(중생). 새롭게 된 심령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회개 또는 성화의 삶). 이러한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은혜가 강조된다.(도르트 신경 3-4항에 대하여, article 11-12) 이를 교리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외적 말씀에 대한 부르심(소명), 성령의 사역에 의한 말씀의 효력이 발휘되는 내적 말씀에 대한 부르심을 중생과 동일시하였다(『순수신학통론』). 이러한 소명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종교개혁 시대의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신학과 신앙이 그 힘을 상실의 갈수록, 회심은 더욱더 처음 중생과 구별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심과 중생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점차적으로 회심은 중생과 칭의 이후의 성화वाद 구별되는 믿음과 회개 측면으로 제한되어 갔다. 전자의 예로서, 뮈레틴은 회심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회심은 “기질적이며 수동적인 회심”(habitual or passive conversion)으로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 기질들의 주입으로 영혼의 기질(habit)과 성향(deposition)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두 번째 회심은 “능동적이며 효과적인 회심”(active and effective conversion)으로 믿음과 회개로서의 활동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중 회심에서, 뮈레틴은 전자를 중생으로 후자를 회심으로 불렀다. 후자의 중생과 회심의 관계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회심을 회개와 믿음으로 간주하였고, 회개와 믿음이 서로에게 속한다거나(John Murray), 분리하여 보기도 한다(Rolland McCune); Geerhardus Vos, *Reformed Dogmatics*, ed, Richard B. Gaffin, trans, Annemie Godbehere, Vol. 4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12-2016), 3-6; Francis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ed, James T. Dennison Jr., trans, George Musgrave Giger, Vol. 2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1992-1997), 15.4.13: 522; John Murray,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1955), 113; J. Polyander, A. Rivetus, A. Walaeus, A. Thysius, *Synopsis Purioris Theologiae: disputationibus quinquaginta duabus comprehensa ac conscripta*, 6th ed, ed, H. Bavinck (Leiden: Donner, 1881), 294-300; James T. Dennison Jr.,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1523-1693*, Vol. 4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8-2014), 137-138; Rolland McCune, *A Systematic Theology of Biblical Christianity: The Doctrines of Salvation, the Church, and Last Things*, Vol. 3 (Allen Park, MI: Detroit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10), 61-68, 83-89.

74) 칼빈이 회심관에서, 바빙크와 게르하르스 보스 모두는 중생에 의한 믿음의 관점을 보다 적합하게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칼빈의 회심관의 폭 넓은 관점과, 성령에 의한 중생과,

을 믿음으로 결과라고 본 것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갖는다. 두 신학자 모두는 말씀의 내적 사역에 의한 회심체험과 그 결과로서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점에서 일반적인 개혁파의 견해와 같이 중생이 믿음에 선행하는 관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차이점이다. 첫째 회심체험의 형태적 차이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공통점의 다른 측면이면서 보충적인 내용이다. 버나드는 특별히 세상에 대한 유혹과 교만 등을 회심체험을 통해 극복하였다. 반면에 에드워즈는 예정과 같은 교리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더욱 깊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체험하는 회심을 경험했다. 전자는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회심과 가깝다면, 후자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특별한 은혜로 더욱 깊은 성경적 이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sup>75</sup> 이 형태적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회심에 있어서, “믿음과 회개에 앞서는 일차적 중생과 후속하는 이차적인 중생(renewal, *renovatio*)을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연속성을 파괴한다.”<sup>76</sup> 그 결과는 현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도

---

그 결과로 의롭게 된 신자의 믿음의 결과로서의 평생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회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적극 지지하였다. Vos, *Reformed Dogmatics* Vol. 4 (2012-2016), 4;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4 (2008), 130.

75) 에드워즈 자신은 처음 회심할 때, 칭의시 어느 정도 상당한 인격적 변화가 있어야함을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양낙홍,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 (2012), 206-207.

76)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4 (2008), 56;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4 Vol, 3th ed. (Kampen: Kok, 1918), 31; “ook zij verbraken de continuïteit van het geestelijke leven, door de wedergeboorte altyddoor erliesbaar te stellen, en met name tusschen de aan geloof en bekeering voorafgaande generatio prima en de daarop volgende regeneratio secunda (renovatio) onderscheid en scheiding te maken.”; 네덜란드어 *leven*의 명사적 의미는 생명, 삶(생활) 등으로 번역 가능하다. 본문 *geestelijke leven*를 영어 번역본과 비슷하게 한글 번역본도 “영적 생활”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네덜란드 흠정역 성경(*Staten Vertaling*)에서 복수형 *de levens*을 포함하여 *het leven* 대부분이 생명으로 쓰인 점에서 *geestelijke leven*를 “영적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전에 가졌던 말씀체험 또는 영접기도와 같은 믿음에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거나, 반대로 “일차적인 중생을 믿음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능력으로만 간주하여 구원을 인간의 의지 여하에만 종속시키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sup>77)</sup> 필자는 두 신학자들의 회심체험 비교에서와 같이, 내적 말씀 또는 중생, 그로부터의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평생 지속되는 회심(회개, 중생, 성화, 갱신 등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은 전체가 회심의 한 과정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참된 회심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의 믿음은 버나드의 회심 체험과 같은 형태 또는 직접적인 체험이 없어도 그러한 회심(중생)의 결과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서의 에드워즈의 회심 체험과 같은 말씀에 대한 더욱 깊은 새로운 이해와 이로 인한 전인적 성장이 계속되기 마련이다. 중생의 새 생명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다면 자라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특징이기도 하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의 신분(state)은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상태(condition)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78)</sup>

둘째 회심을 같은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아도 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누구에게든 그 시대의 아들이라는 말은 적용된다. 버나드는 12세기의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지 않았던 신학적 환경 가운데 살았다. 따라서 그에 신학적 관점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칭의 측면이 분명하게 있고,<sup>79)</sup> 버나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회심과정을 준비 단계와 그 결과를 합하여 칭의와 성화의 구분 없이 연속적인 과정으로도 보았다. 버나드가 교육

---

보다 본문에 충실하다고 고려된다.

77)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4 (2008), 56.

78) Vos, *Reformed Dogmatics* Vol. 4 (2012-2016), 29-30.

7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버나드의 회심체험과 팔복에 대한 비유적 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곧, 의롭다함을 받아 죄 사람을 받은 자가 회심된 자라고 말한 부분에서 나타난다.

적 목적을 위해 쓴 저서들은 이를 반영하여 교만과 겸손은 7단계, 사랑은 4단계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에드워드는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가 정립된 18세기에 살았다. 에드워드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면서도 둘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을 깊이 인식했고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균형된 관점이 그의 저서에서 교리적, 신앙 정서적, 실천적 측면에서 풍성하게 나타난다. 셋째 회심시 성령의 사역의 다양성이다. 두 신학자 모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내적인 음성으로(버나드), 빛으로(에드워즈) 다양하게 다가왔고, 그 말씀의 능력은 그들 각자가 직면한 문제해결과 삶 자체를 바꾸게 했다.

#### **B. 버나드와 에드워즈의 참된 회심의 표지들 비교**

두 신학자의 참된 회심의 표지들로 고려할 수 있는 내용들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어떤 사건적인 회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경험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내외적으로 성장하는 변화를 가져 오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한 변화와 개인의 책임이 모순 없이 함께 포함된다. 이러한 측면이 버나드에게는 이를 과정적인 회심으로, 에드워즈에게는 구도론과 계속적인 말씀 경험으로 나타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두 신학자들에게서 충분한 참된 회심의 표지들로 공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갖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성격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지만, ‘참된 회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러한 대속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인 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말씀



에 의한 회심체험의 목적은 믿음이며,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었다(요 17:3)<sup>80</sup>. 버나드는 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God Himself)”이라고 함축하여 표현했고, 에드워즈는 “신적 탁월성에 대한 감각”으로 표현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두 사람 모두가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된다. 이러한 면은 십자가에 대한 보다 깊은 참된 인식을 주어, 버나드는 이로부터 사랑의 불꽃이 일어난다고 하였고 에드워즈는 참된 안식과 만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지 체험적인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두 신학자 모두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한 말씀의 영광이 그들을 삶을 변화시키는 그 반응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이 말했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한 지식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sup>81</sup> 믿음과 신뢰 그리고 담대함을 가진 신앙에 해당한다.<sup>82</sup> 또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헤르만 바빙크

80) 칼빈과 바빙크가 구원론 전체를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관시킨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 구원론의 첫 부분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의 사역의 목적이 믿음’을 다루었고, 다음 장 믿음에서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다.’로 시작한다. Calvin, *Instit.* III.i.1, III.ii.1;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2008), 522-528. 이로부터 도출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대한 사랑은 두 신학자 모두에게서 신학과 영성 모든 측면에서 중심을 차지하지만 본고의 주제와 연관하여 보다 깊게 다루지는 않았다. 버나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에 대한 청교도들이 받은 영향은 다음을 참조하라(원종천, 『중세영성의 진수: 성 버나드』 (2004), 93-108, 209-238). 조만준은 버나드의 신비주의적 영성이 당시의 사회개혁을 이룬 원동력을 추적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 말씀과 성령을 통한 성결한 삶, 공동체적 영성의 회복을 적용적 의미로 제시하였다(조만준, “성 버나드(St. Bernard of Clairvaux, 1090-1153)의 신비주의 영성이 세속화 시대에 주는 실천 과제”, 『신학과 사회』 32/2 (2018): 109-137).

81)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Vol. 5, trans. J. Owen (Bellingham, WA: Logos Bible Software, 2010), 73-74; 학 2:9 주석에서.

82) 칼빈은 믿음과 신뢰와의 관계를 엡 3:12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은 신뢰를 낳는다. 신뢰는 다시 돌아와 담대함을 낳는다. 우리의 진보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다음으로 이러한 의뢰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거룩함이 동반되는 신뢰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확고함과

가 말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지식과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무한의 신뢰하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sup>83</sup>

둘째, 참된 회심은 전인격적 성향의 변화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타난다.<sup>84</sup> 참된 회심이후에는 내면적 성향의 변화에서 두 신학자 모두에게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이를 버리고 극복하는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 그 중심에는 내외적인 자기 교만이 참된 겸손으로 성장해 나가는 측면이 있다. 칭의로 인한 죄의 결과로 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가 더욱 넓어져 나가는 삶이다. 이웃에 대하여는 악을 선으로 갚는데 까지 참된 '선행(자선)'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자기사랑의 어떤 변형된 형태나, 자기 중심적에서 나오는 "일반 도덕성(common morality)"과는 달리 참된 회심에서 나오는 선행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온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두 사람 모두가 언급하듯이 율법 계명이 부담이 되지 않고 즐겁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

견고함에 이르게 하는 담대함에 이른다.”;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trans. William Pringle (Bellingham, WA: Logos Bible Software, 2010), 257.

83)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4 (2008), 110, 113, 126.

84) 원종천은 에드워즈 시대의 대각성 운동 중 다양한 회심체험들이 문제시 되었을 때, 부흥주의자들과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본 이성주의자들의 관점들을 평가하면서, 회심 즉 중생은 성령의 사역으로 전인적인 영향,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있음을 강조하였다(원종천, “미국 대각성운동 회심체험에 나타난 성령사역의 이해에 대한 평가”, 『ACTS 신학과 선교』 Vol. 7 (2003): 159-181, 특별히 178-181). 바빙크는 중생의 본질을 당시 신지학자들의 새로운 외적 실체의 주입이나 리츨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에서의 도덕적 개선에 반대하여 생명의 근원인 마음(잠 3:23), ‘성향’(habitus) 또는 ‘자질’(qualitates)로 불리는 인간의 내적 성품의 영적 새롭게 됨으로 정의하면서 그 근거를 에드워즈의 『종교적 정서』, III. 1로 들었다. 다만 에드워즈가 “본성의 원리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보다 결정적 의미의 단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에드워즈의 설명을 함께 덧붙였다;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 Vol. 4 (2008), 102.

셋째, 두 사람 모두에게 참된 회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대가를 치르듯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12세기와 18세기의 두 영적 거장(巨匠)인 버나드와 에드워즈의 각자의 회심체험과 회심론에서 출발하여 ‘참된 회심의 표지들’을 비교하여, 교회와 신자들을 위한 신앙 점검과 성장의 방향과 목회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서 신학적 측면에서, 두 신학자의 회심체험에 기반을 둔 회심론 자체는 성경과 경건한 신학에 적합한 회심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령의 의한 성경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인적 변화가 처음 회심과 함께 지속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신학적 측면에서의 신앙점검과 목회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회심은 근래에 주로 논의되는 회개와 믿음 측면에 국한시키는 것보다 신자들의 삶 전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회심에 있어서, 믿음과 회개에 앞서는 일차적 중생과 후속하는 이차적인 중생(회개, 성화)을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연속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첫 신앙을 갖게 한 중생과, 이로 인한 갖게 된 믿음의 결과인 회개의 삶은 단절되지 않은 연속적인 과정이다. 둘째, 첫 회심과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회심에서, 다양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말씀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내적 말씀 또는 성령의 사역은

그 근거가 상실된다. 왜냐하면 말씀체험은 객관적인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전제되고 그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참된 회심의 표지들에 대한 비교 결과에 따른 신앙점검과 목회적 함의이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이, 교주의 가르침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세워진 것과 같이<sup>85</sup>, 첫째, 첫 회심과 함께 지속적인 말씀에 대한 체험적 지식, 즉 객관적인 계시,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신뢰하는 삶은 모든 신자들의 삶의 토대와 영적 양식이 된다. 둘째, 이로부터 내적으로 지속적인 전인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은 회개의 삶의 첫 번째 요소인 죄를 죽이고 정복하는 삶이다. 그 결과는 내외적인 겸손으로 이어진다. 셋째, 첫 번째 표지의 외적 결과로서, 또한 회개의 삶의 두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것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악을 선으로 갚는데 까지 발전해 나가는 이웃 사랑이다.

필자는 두 신학자를 비교 연구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경건과 실천, 신앙과 일반 사회적 삶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의 능력이 모든 대립적인 요소들의 극복해 주리라 생각해 본다. 그 결과로 다양한 갈등 요소들의 수평적인 조화를 건너뛰어 말씀이 이끄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여러 갈등 요소들을 봄으로써,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전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 소망해 본다.

85) 헤롤드 C. J. 브라운, 『교회사 안에 나타난 이단과 정통』, 라온성 역 (서울: 그리스, 2001),

## 참고문헌

- 원종천. 『중세영성의 진수: 성 버나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_\_\_\_\_. “미국 대각성운동 회심체험에 나타난 성령사역의 이해에 대한 평가”, 『ACTS 신학과 선교』 Vol. 7 (2003): 159-181.
- 양낙홍.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 노병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중생론: 칼빈, 웨슬리의 신학 사상과 관련하여”, 신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178-187.
- 이문균.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와 그 목회적 함의”, 『한국 기독교 신학논총』 65/1 (2009): 135-157.
- 조만준. “성 버나드(St. Bernard of Clairvaux, 1090-1153)의 신비주의 영성이 세속화 시대에 주는 실천 과제”, 『신학과 사회』 32/2 (2018): 109-137.
- 조나단 에드워즈, “참된 은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열매들』, 박철동 역, 임덕규 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177-286.
- 헤롤드 C. J. 브라운, 『교회사 안에 나타난 이단과 정통』, 라은성 역, 서울: 그리심, 2001.
- A. J. Polyander, Rivetus, A. Walaeus, A. Thysius. *Synopsis Purioris Theologiae: disputationibus quinquaginta duabus comprehensa ac conscripta*, 6th ed. Edited by H. Bavinck, Leiden: Donner, 1881.
- St. Bernard. “On Conversion.” In *Bernard of Clairvaux: Selected Works*, Translated by G. R. Evans. New York: Paulist Press, 1986.
- \_\_\_\_\_. “On the Steps of Humility and Pride.” In *Bernard of Clairvaux: Selected Works*, Translated by G. R. Evans. New York: Paulist Press, 1986.

- \_\_\_\_\_. *Some Letters of St. Bernard Abbot of Clairvaux*, trans. Dr. Eals, London: Ballantyne Press, 1904.
- \_\_\_\_\_. "On Loving God." In *Bernard of Clairvaux: Selected Works*, Translated by G. R Evans. New York: Paulist Press, 1986.
- Bavinck, H. *Reformed Dogmatics*. Vol. 3-4. Translated by J. Bolt & J. Vri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2012.
- \_\_\_\_\_. *Gereformeerde Dogmatiek*, 4 Vol. 3th ed. Kampen: Kok, 1918.
- Buttrick, George Arthur.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5 Vols. New York: Abingdon Press, 1962-1976.
- Calvin, J.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Translated by William Pringle. Bellingham, WA: Logos Bible Software, 2010.
- \_\_\_\_\_.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Vol. 5. Translated by J. Owen. Bellingham, WA: Logos Bible Software, 201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 Dennison Jr. James T. "The Canons of Dort (1618-1619)," In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1523-1693*, Vol. 4.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8-2014.
- Edwards, Jonathan. "Memories of Jonathan Edwards," & "Religious Affection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 2nd. Aron: The Bath Press: 1945.
- \_\_\_\_\_. "True Grace Distinguished from The Experience of Devils," in *The*

-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2nd, Aron: The Bath Press: 1945.
- \_\_\_\_\_.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 “Reality of Conversion.” In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A Reader*, Edited by Wilson H. Kinnach, Kenneth P. Minkema, and Douglas A. Sween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 Gaybba, B. P. *Aspects of the Medieval History of Theology*. Pretoria: University of South Africa, 1988.
- Lane, Anthony N. S. *Bernard of Clairvaux Theologian of the Cros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 McCune, Rolland. *A Systematic Theology of Biblical Christianity: The Doctrines of Salvation, the Church, and Last Things*, Vol. 3. Allen Park, MI: Detroit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10.
- Morgan, C. W. & R. A. Peterson. (Eds.) *The Glory of God*. Wheaton, IL: Crossway, 2010.
- Morison, M. A. & James Cotter, *The Life and Time of Saint Bernard Abbot of Clairvaux A.D. 1091-1153*. Lincon College. Oxford: Macmilian and Co, 1884.
- Théodore, Marie Theiodore. *The Life and Time of St. Bernard*, New York: J. Sadlie, 1889.
- Turretin, Franci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Edited by James T. Dennison Jr. Translated by George Musgrave Giger. Vol. 2.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1992-1997.
- Vos, Geerhardus. *Reformed Dogmatics*, Edited by Richard B. Gaffin, Translated by Annemie Godbehere. Vol. 4.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12-2016.

Allen, Loyd.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Devotion." *Faith and Mission* 7/2 (Spring 1990): 3-17.

Evans, G. R. "A Change of Mind in Some Scholars of the Eleventh and Twelfth Centuries." *Studies in Church History* 15 (1978): 27-39.

Lovelace, Richard F. "Evangelical Spirituality: A Church Historian's Perspectiv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1:1 (Mar. 1988): 25-34.

Stetina, Karin Spiecker. "The "Sense Of The Heart": Edwards's Public Expression Of His Pietistic Understanding Of Religious Experience." *Puritan Reformed Journal* 2/1 (Jan. 2010): 197-212.

Billy, Dennis J. "Preaching Conversion Through The Beatitudes: Bernard Of Clairvaux's Ad Clericos De Conversione." In *Faith & Reason*. New York: Christendom Press, 1995. Available at: <https://www.catholic-culture.org/culture/library/view.cfm?recnum=3729> 2018년 6월 3일 접속.



Abstract

## A Study of the Marks of True Conversion : Focused on St. Bernard's *On Conversion* and Jonathan Edwards' *True Grace*

Park, Cheol Dong

| Ph.D. The Lord's Word Church, Systematic Theology |

Discerning the marks of true conversion is challenging. Moreover, no one has a right to judge true conversion of other people from the viewpoint of the traditional reformed theology such as “the finite is not capable of containing the infinite.” Nevertheless, this paper examines the marks of true conversion which can be considered sufficient signs of true conversion to Christ. Establishing this will provide, not only the norms for examining one's own true conversion, but also direction for the proper growth of our spiritual lives, excluding a negative approach to true conversion, even though the most studies of true conversion generally deal with both true marks and uncertain marks of real conversion.

There are three reasons why the methodology of this paper adop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rks of true conversion between St. Bernard of Clairvaux (1090-1153) and Jonathan Edwards (1703-1758). First, St. Ber-

nard and Jonathan Edwards share common thoughts on the topic of conversion and its marks. Second, conversion within both theologies contain a balance and harmony of theology and piety, doctrine and praxis. Third, Edwards' *True Grace* and Bernard's *On Conversion* have been influential and decisive elements of conversion.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s and theories of conversion of Bernard and Edwards. Both theologians share essence of conversion is (1) the direct work of Holy Spirit, a transformation of the whole by the calling of the Word (*vocatio verbalis*) and raising faith and repentance by regeneration. They see (2) the continuity of conversion (repentance): Even if the whole of conversion to God is understood under the terms repentance and faith, conversion should be understood more broadly, which is shared by the view of John Calvin 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536, 1559). Because it breaks up the continuity of the spiritual life to make it a distinction and a separation between the primary regeneration, which precedes faith and repentance, and the subsequent secondary regeneration (renewal or repentance), which is shared by the view of Herman Bavinck in *Reformed Dogmatics* (Vol. 4). and (3) a variety of works of Holy Spirit in conversion experience of two theologians; The modes of applying of inner Word: inner voice (Bernard) and supernatural light (Edwards), and also the power of the Word resolved the problems: inward and outward temptations (Bernard), more deep understanding of biblical doctrines. (Edward).

This paper finds common signs of true conversion which can be considered sufficient marks. First, it is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that

enables the transformation of the whole human being, both inwardly and outwardly. At the same tim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 the battle against sins (Bernard), the pursuit of all of the means of grace (Edwards). Second, as a result of getting known God the Father and Christ Himself by the work of the Word of God, it will be especially improved the progress of holiness to overcome sins as mortification of one part of repentance. Third, it can also be practiced a true love to God (for Himself) for whom one does all thing which no matter what he can to honor Him, and a true love to neighbors (for neighbors-self) from to love them who love oneself, through being patience against evil, to overcome evil with good, as vivification of the other part of repentance.

---

[ Key Words ]

True Conversion, Jonathan Edwards, St. Bernard, Affection, Holiness, Spirituality, Religious Experience